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7월 29일(월) 조간(7.28.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7. 26 / (총 5 매)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과 장	김 우 기	전 화	044-202-3190
담 당 자	윤 석 범		044-202-3195

영화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을 마주하다!

- 보건복지부,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 개최 (7.29) -

영화 <어린 의뢰인>

▷ 2013년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을 동기(모티브)로 제작하였으며, 한 변호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의 영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9일(월) 오후 4시 CGV세종에서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상영회는 ‘칠곡 계모 사건’ 실제 피해아동, <어린 의뢰인> 아역배우 최명빈 양, 영화 관람 후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산초교 6학년 구효성 군 등이 “정부 관계자들이 영화 <어린 의뢰인>을 보고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편지를 정부 담당부처에 보낸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 이를 통해 영화를 관람한 아동학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보다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상영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 담당자, 영화 제작사 대표 및 아역배우 최명빈 양·이주원 군, 아동학대 유관기관 관계자, 고양시 중산초교 학생, 세종거주 양육 부모 및 자녀 등 약 1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
- 상영회는 무대인사, 질의응답, 홍보(캠페인) 참여 선서 등 사전 행사와 영화 <어린 의뢰인> 관람의 순서로 진행된다.
- 무대인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행사 소감을 밝히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다.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진훈 이스트드림 시노팩스(제작사) 대표 △아역배우 최명빈 양·이주원 군 △중산초교 구효성 군
 - 특히 아역배우 최명빈 양은 “저희 엄마에게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직접 ‘다빈’*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다른 ‘다빈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 * 극 중 학대피해아동으로 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게 됨
 - 중산초교 구효성 군은 “<어린 의뢰인>을 보고난 후 사회라는 공동체에 큰 관심이 생겼다”면서, “나와 같은 또래의 진짜 ‘어린 의뢰인’들이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홍보(캠페인) 참여 선서는 최명빈 양과 구효성 군이 함께 ‘주변의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낭독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후 <어린 의뢰인> 관람이 이뤄질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상영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영화를 의미 있게 관람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1. 영화 <어린 의뢰인> 개요
2.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 개최계획

붙임 1

영화 <어린 의뢰인> 개요

- (개요) 2013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하여 재구성,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라는 영화의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
- (런닝타임·상영등급) 114분, 12세 관람가
- (제작) 이스트드림시노펙스(주)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 (감독) 장규성
- (출연) 이동휘, 유선, 최명빈, 이주원

			
이동휘	유선	최명빈	이주원

- (줄거리) 10살 소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변호사 정엽(이동휘)과 진실을 감추고 있는 엄마 지숙(유선), 그리고 자신을 돕겠다고 말하는 어른들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소녀 다빈(최명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붙임 2

영화 ‘어린 의뢰인’ 상영회 개최계획

- (일시) '19.7.29.(월) 16:00~18:30
- (장소) CGV세종 6관(세종 도읍1로 108 몰리브 7층)
- (사회자) 임평순 아나운서(티브로드 수원방송 아나운서)
- (참석자) 복지부 및 관계부처 직원 등 170여 명

대상		인원
복지부	장관,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등	40명
관계부처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30명
관련인 (기관)	제작사대표, 아역배우, 중산초등학교 학생,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	50명
지역사회	세종시청, 세종시지방경찰청, 세종시 양육부모 및 자녀 등	50명
총계		170명

- (세부일정) 사전행사 및 영화 관람으로 나누어 진행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6:00~16:03	- 행사 취지 설명, 내빈 소개	사회자
16:03~16:07	- 패널 무대인사	패널* 5인
16:07~16:22	- 참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질문 3~4개 선정
16:22~16:25	- 캠페인 선서	아이해 캠페인 선서
16:25~16:30	- 포토이벤트	참석자 전원
16:30~18:30	- 영화 상영	

* 패널: 복지부 장관, 제작사 대표, 아역배우 2인, 구효성 군(중산초 6)